

교 회 소 식

1. 오늘은 교회력에 따라 성령강림 후 스물 한 번째 주일입니다.
2. 다하나교회에 처음 오신 분과 방문하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3. 매주 첫째 주일 예배는 온 가족 예배와 함께 성찬식이 있습니다.
4. 예배 후 어린이들을 위한 Trunk-Or-Treat 행사를 갖습니다. 어린이들을 위한 게임도 진행됩니다.
5. 생일을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 4일 : 강대훈, Melody Ouk, 6일 : 최은지, 7일 : 오지은

*다음주 예배봉사자

- 기도: 성백찬 / 설교번역: 위충일
- 11월 안내 및 봉사: 어벤저스 목장

*향후 교회 행사 (Church Plan)

- 부서지기 모임 : 11월 9일 예배 후
- 추수감사 공동식사 : 11월 16일 주일 예배 후

*성서일과 Lectionary (제 44주)

사 1:10-18, 시 32:1-7, 살후 1:1-4, 11-12, 16-18, 눅 19:1-10

교회세운날 2017.6.11

25-44 11월 2일 (성령강림 후 스물한 번째 주일)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주 일 예 배 : 매주 주일 오후 3시
수요기도회 : 매주 수요일 오후 8시 Zoom으로

3401 SALEM RD SW, ROCHESTER, MN 55902

Web : <https://mnrochesteroneheartchurch.com>

담임목사 : 김경현 목사 (213-357-7614)

예 배 순 서

인도자: 김경현 목사

예배로의 부름과 기원 ——— 시 34:1-3 ——— 인도자

신앙고백 ——— 사도신경(새번역) ——— 다같이

*찬양과 경배 ——— 찬양팀과 함께

기도 ——— 위충일

찬송 ———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 다같이

성경봉독 ——— 누가복음 19:1-10절 ——— 인도자

설교 ——— 잃어버린 자를 찾아 오신 예수님 ——— 김경현 목사

성찬식 ——— 다같이

봉헌찬송 — 228장 오 나의 주님 친히 뵈오니 (4절) — 다같이

봉헌기도 ——— 인도자

교회소식 ——— 인도자

*파송찬양 ———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 다같이

*축도 ——— 인도자

* 표에는 일어납니다.

목회편지 / 희망발전소

추수가 끝난 옥수수밭 주변을 거니는 것이 스산하기만 합니다. 하지만 건너편 교회 너머 마을을 붉게 물들인 단풍은 무채색으로 변해가는 세상에 주는 마지막 위로인 듯 합니다. 바람과 구름이 오고가며 햇별이 나고 들 때마다 단풍의 채색도 더욱 화려하게 빛이 납니다. 햇별과 구름이 만들어내는 빛의 교차가 단풍을 한결 더 아름답게 해줍니다. 믿음이란 질척질척한 일상에 하늘의 빛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라 했나요?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듯한 무채색의 일상에 하늘 빛이 스며들 때 우리네 삶도 저렇게 아름답게 빛나리라 믿습니다. 교회는 희망 발전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세속적이고 어두운 세상을 하늘 빛으로 밝히는 희망 발전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에 모여 매주 정기적인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에 속한 모든 이들이 예배를 통해 얻은 기쁨을 안고 나아가, 척박한 세상을 사랑과 진실로 갈아 엮고 평화의 씨앗을 파종하기 위해 세상 속으로 흩어 집니다. 그들은 희망 발전소에서 담아 온 하늘의 빛의 동력으로 자신의 삶의 자리를 조금이나마 밝히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머무는 곳을 아름다워지는 것이지요. 악지(惡地)를 길지(吉地)로 바꾸는 사명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습니다. 교회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라 하신 하나님의 소명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전초기지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교회를 통해 서로의 소명을 확인해 주고 빛을 회복할 수 있도록 서로 섬겨주시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섬김은 서로를 지지해주고 응원해줌으로 하늘 빛을 심어주고 자 개발하신 하나님 나름의 희망 발전소의 발전방식이 아닐까요?

지난 주부터 매달 넷째 주에 예배가 끝나고 목장별로 흩어져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는 시간을 시작해 보았습니다. 어땠나요? 저는 청년들과 함께 나눔을 가졌는데 무척 유익하고 행복한 시간였습니다. 청년들이 질척하면서 버거운 자신들의 삶의 자리에서 빛으로 살아가려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귀하기만 합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보듬어 안아 주는 나눔의 시간이 소중했습니다. 이런 시간이야말로 희망 발전의 시간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가 어떻게 내 삶의 이야기가 될 것인지 상상하는 시간이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이야기의 일부로 살아가고 있다는 자부심과 희망을 발견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눔과 섬김의 시간이 잘 정착되길 바라보고, 좋은 결과가 있다면 한 달에 두 번으로 늘려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2주에 한 번은 만나서 서로가 각자의 일상 속에서 실천해본 희망의 몸부림을 나누며 자극 받고 함께 성장해 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새로운 소명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전초기지이자, 세속적인 세상을 하늘 빛으로 밝히는 희망 발전소인 교회가 건강하게 그 발전을 계속해 가기를 기도해 봅니다. 그래서 목장발 같이 황폐해진 세상을 사랑과 진실로 갈아 엮어 평화의 씨앗을 파종하기를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희망이 되는 교회가 되어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의 희망이자 하나님의 희망입니다. 부디 여러분이 계신 삶의 자리에서 빛이 되어주시길 바라마지 않습니다.